

"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" 출범 간담회 후기

Analyst 이선경 seonkyoung.lee@sk.com / 3773-9089

SK증권 리서치센터

CDO/CRO/CMO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

- 국내외 수요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기반한 CDO/CRO 서비스 제공, 25년 영업 개시, 27년 매출 천억원 목표
-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CMO 비즈니스, 공급 과잉 상황 고려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필요한 10만 리터부터 시작 예정
- 수주 상황에 따라 국내 10만 리터, 해외 10만 리터 최대 30만 리터 추가 증설 계획,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

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 개요

- 설립일: 2024년 12월 17일
- 초기자본금: 100억원
- 최대주주: 셀트리온 100%
- 사업내용: CDO/CRO/CMO 서비스
 - 모달리티 관련-항체/세포/유전자/펩타이드/마이크로바이옴/저분자/백신 등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 구축
 - 약물전달 시스템 관련-SC/경구용/흡입형/패치형 등 기술 기반의 서비스 확대
- 설립배경: 내재화 되어있는 기술 기반,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법인 설립 결정
- 추진 계획 및 목표: 국내 20만 리터, 필요시 해외 10만 리터 추가 검토 예정
 - 셀트리온 보유한 40여개국 영업망 기반, 연계하여 글로벌 영업 사무소 개소 예정
 - 연구소는 한국 메인, 미국, 유럽, 인도 확장 예정
 - 세포유전자 생산, 대형병원에 근접한 생산 시설 투자 예정-2-3년 내에 완성 목표
- 연도별 추진 계획: CDO/CRO 25년 영업 개시, 27년 매출 천억원, 30년 매출 5천억원 목표
 - CMO 25년 상반기 10만 리터 공장 건설 예정, 28년 CMO 생산 개시, 29년 매출 5천억원 목표 및 10만 리터 추가 증설, 30년 매출 1조원 목표
- 자금조달 계획: 총 2조-3조 투자 필요, 1-1.5조원 자체자금 투자, 필요시 1-1.5조원 외부 조달 예정
 - 셀트리온 100% 자회사로 셀트리온 지분율 50% 유지 예정

주요 Q&A

1. 글로벌 연구소 설립과 관련,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?
 - > CDO/CRO 비즈니스 특성상 다수의 연구 인력이 필요하며 500여명의 R&D 인력 확보 예정
 - 연구소는 미국, 유럽, 인도 등 계획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인 부분은 인도 연구소에서 담당하면 경제적이다 판단
2. 증설에 있어 수주를 받고 진행할 계획인지, CDMO의 경우 트랙레코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와의 경쟁력과 차별점을 어떻게 확보?
 - > 증설 계획은 1단계 10만 리터, 2단계 20만 리터, 3단계 30만 리터 계획, 여기서 10만리터까지는 셀트리온이 필요한 Capa, 영업 활동을 본격화 한 후에 외부 수주에 따라 20만 리터 착공시기 결정 될 것

3. CDMO 공급 과잉에 대한 의견은?

＞ CMO는 공급 과잉 상황이나 CDO는 많지 않은 상황, CRO는 CRO 비즈니스로 특화되어 있는 상황
CDMO/CRO/CMO 비즈니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회사는 론자 유일, CMO의 경우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내부 수요를 고려하면서 증설할 계획, CMO만 해서는 만 리터당 천억원 매출 발생 불가능

4. 20만 리터 최대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, 그리고 풀 가동에 걸리는 예상 시기는?

＞ 수주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, 다만 만 리터당 천억원 매출 목표로 운영 할 예정이며, OPM은 30%

5.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, 통과시 기회요인은?

＞ 생물보안법 때문에 본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님, 중국회사는 CDO/CRO 역량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

6. 동사가 보유한 차별화 전략과 CMO에서의 수주가 안될 시 대안은?

＞ 수요 고객들로부터 CDO/CRO 서비스 요청 많이 의뢰받음. 특히 세포/유전자, 저분자 쪽 해당 분야는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님.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는 CMO이며 1단계로 시작하는 10만 리터는 셀트리온이 필요한 Capa.

7. 인력 충원 계획은?

＞ 25년은 기획단계, 약 20-30명 수준의 인력 필요, CDO/CRO의 경우 500명의 연구 인력이 필요하며, CMO는 공장 건설이 끝난 후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상황. 해당 타임라인을 고려해 인력 충원할 계획이며 자본금을 증가하면서 가급적이면 부채 없이 운영하는 것이 목표

8. 상장 계획은?

＞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른 상황

9. 셀트리온 100% 자회사로, 신약개발과 CDMO 이해상충의 문제로 수주가 어려울 가능성은?

＞ 이해상충의 문제가 아님, CDO>CRO>CMO 서비스를 해주는 분야가 없음

10. 외부자금 조달 관련, 협의되고 있는 기관과 그 규모는?

＞ 아직 이른 시기,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음. 하지만 필요시 투자유치에 있어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 판단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